

코로나 위험 3주째 '낮음'... '우세종' BN.1 검출률 56.9%

당국 "확진자, 위중증, 병상 가동률 개선돼"
위험도 3주째 낮음... 전주대비 확진 23.8% ↓
BN.1 국내검출률 56.9%... BA.5 12.8%로 감소
사망자 일평균 30명... 60세 이상 고령 96.6%
申입국자 양성률 1.1%... "반등세 관찰 안 돼"

2월 1주 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전주 대비 20% 하락하면서 3주 연속 '낮음' 단계의 위험도를 유지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BN.1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검출률은 56.9%로 나타나면서 우세종 지위를 굳혀가고 있다.

8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발표한 2월 1주(1월29일~2월 4일) 주간 위험도 평가를 보면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낮음'으로 평가됐다. 주간 위험도 평가는 3주 연속 낮음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입국자 양성률 1.1%... "반등세 관찰 안 돼"

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 단계가 시행된 지 일주일 지났다"면서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다행스럽게도 유행 감소 상황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간 확진자 수는 전주대비 23.8% 감소한 1만1만2748명이다. 일평균 확진자 수는 1만6107명으로 나타났다. 전파력을 알 수 있는 감염재생산지수는 0.90로, 유행 확산을 의미하는 수치 1.0 미만을 5주째 유지했다.

주간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 사례는 23.03%로 직전 주인 22.81%보다 증가했다. 지난달 29일 기준 누적 확진자 2860만

3343명 중 재감염 추정 사례는 135만34명(4.69%)로 집계됐다.

임 단장은 재감염률이 증가하는 데에 대해 "작년에 오미크론이 2~3월에 대유행할 때 그때 감염된 분들이 많다. 그 이후에 감염으로부터 획득한 면역이 일정 부분 떨어졌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재감염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2가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다"고 접종을 독려했다.

주간 일평균 사망자 수는 전주 대비 21.0% 증가해 일평균 30명이다. 일평균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28명(96.6%)이다.

주간 일평균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전주대비 20.5% 감소한 일평균 368명이다. 일평균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은 326명(88.6%)로 나타났다.

전국의 중환자실 가동률은 18.8%, 수도권 16.7%, 비수도권 22.9%다. 전국과 수도권 10%대로 4주 연속 감소했다.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의 먹는 치료제 처방률은 32.5%로 지난주(32.6%) 대비 0.1%p 감소했다.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을 보면 지난주부터 우세종이 된 BN.1의 경우 전체 감염률은

55.3%로 전주대비 6.4%p 증가했다. 국내 감염은 56.9%, 해외유입은 27.7%로 나타났다.

기존 우세종이었던 BA.5의 국내 감염 검출률은 전주 18.3%에서 12.8%로 감소했다. 국내 감염을 기준으로 BF.7, BA.2.75 변이 바이러스는 전주대비 검출률이 감소했다.

미국 내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XBB.1.5 변이 바이러스는 21건이 추가 검출됐다. 국내에서 13건, 해외 유입 8건으로 검출률은 0.8%다. 전주(0.4%)에 비해 국내 감염 검출률이 증가했다.

한편 방역 당국이 지난달 2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역을 강화한 지 5주차 들어 입국자 양성률이 2.0%로 집계됐다.

지난달 29일부터 4일까지 7일간 중국에서 출발해 우리나라로 입국한 사람은 총 9492명이다. 이중 9373명이 검사를 받아 103명(1.1%)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5주차 양성률은 1.1%로 전주(2.0%)에 비해 0.9%p 감소했다.

공항에서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은 1788명으로 이중 25명(1.4%)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거주지 관찰 보건소에서 검사

를 받은 장기체류 외국인 5478명 중 46명(0.8%), 내국인 2107명 중 32명(양1.5%)이 확진돼 격리조치됐다.

단기체류 외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각각 전주 대비 3%p, 0.5%p 감소했다. 내국인은 전주대비 0.2%p 증가했다.

지난달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 이후 4일까지 4만5281명 입국자 중 4만5035명이 PCR검사를 받아 이중 2353명이 양성 확진을 받았다. 누적 양성률은 5.2%다.

방역 당국이 지난달 25~29일 중국발 단기체류 확진자 49명에게서 확보한 검체 중 분석 가능한 12명에 대해 전장유전체 변이 분석을 실시한 결과 오미크론 BA.5 세부계통 검출률이 100%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BA.5 58.3%, BF.7 41.7%로 나타났다.

임 단장은 "중국발 입국자의 전체적인 양성률은 감소하여 춘절 이후 반등세는 아직까지 관찰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후에도 검사 및 확진자 관리를 철저히 해서 해외 유입 감염병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이슬 기자



두꺼운 외투 벗어던지고

포근한 날씨를 보인 8일 오후 대구 중구 대봉교 인근 신천둔치 농구장에서 학생들이 두꺼운 외투를 벗고 농구를 즐기고 있다.

재혼비용 반반씩? 천만에... 설문했더니

남성 32.6%, 여성 38.0% '남자가 더 많이 부담'으로 답해

돌싱(돌아온 싱글)들은 재혼에 필요한 집과 가재도구 등을 장만하는데 드는 비용은 남녀가 어떤 기준으로 분담하기 원할까. 남녀 모두 '남성이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재혼 결혼정보회사 온리-유가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와 공동으로 지난달 30일~이달 4일 전국의 (황혼)재혼 희망 돌싱남녀 516명(남녀 각각 2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8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혼에 필요한 비용은 남녀가 어떤 기준으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에 대해 남성은 32.6%, 여성은 38.0%가 '남자가 더 많이 부담'으로 답했다.

이어 남성은 '남녀 비슷하게 부담'(28.3%), '쌍방의 경제력에 따라 부담'(20.1%), '남자가 대부분 부담'(1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남자가 대부분 부담'(28.7%), '남녀 비슷하게 부담'(18.2%), '쌍방의 경제력에 따라 부담'(15.1%) 등으로 답했다.

남성 응답자 51.6%, 여성 응답자 66.7%가 남자 위주로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분석됐

다. 재혼 후 부부 공동의 재산은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남성은 '남편 명의'(60.5%), 여성은 '공동 명의'(52.3%)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2위는 남녀 모두 '부부의 재산 비율 적용'(남성 27.1%·여성 25.2%)으로 조사됐다. 3위는 남성의 경우 '공동 명의'(8.1%), 여성의 '남편 명의'(16.3%)가 차지했다. 4위는 '아내 명의'였다. 남성은 4.3%, 여성은 6.2%로 나타났다.

'재혼을 하면 본인의 재산은 대부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남성 63.2%가 '재혼 살림 준비'로 답했다. '본인 자녀(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지원'(13.2%)과 '부부 공동 생활비'(9.3%), '본인의 사업 운영비'(7.4%) 등이 뒤를 이었다.

여성도 '본인 자녀 지원'이 32.2%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부 공동의 생활비'(22.9%), '본인 생활비'(16.3%), '재혼 살림 준비'(14.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김재환 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